

보도시점 : 2025. 8. 3.(일) 11:00 이후(8. 4.(월) 조간) / 배포 : 2025. 8. 1.(금)

노후도로 4개 노선 “안전하게” 거듭난다 … 28.6km 구간 새단장 후 순차 개통

- 경북 김천, 경기 안성, 연천 국도 및 전북 진안-무주 국지도 개통…
교통정체 해소,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밀착형 도로 기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일반국도 3개 노선(3호선, 38호선, 59호선) 및 국가지원지방도 1개 노선(49호선)의 확장 및 개량 사업이 마무리되어 8월 4일을 시작으로 노선별로 순차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다.

- * 경북 김천(국도 59호선): 8월 4일 09시 개통 (대광동~감문면 태촌리 8.2km)
- 경기 안성(국도 38호선): 8월 5일 09시 개통 (공도읍 만정리~대덕면 신령리 3.7km)
- 경기 연천(국도 3호선): 8월 29일 11시 개통 (신서면 도신리~대광리 6.9km)
- 전북 진안-무주(국지도 49호선): 8월 30일 10시 개통 (진안 동향면 대량리~무주 안성면 장기리 9.8km)

- 이번에 개통을 앞둔 4개 사업은 상습 교통정체 완화, 교통사고 위험의 구조적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성 향상 등을 위해 추진하였으며, 사업비는 총 2,287억원을 투입하였다.

□ 각 노선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경북 김천(국도 59호선): 8월 4일 09시 개통 (대광동~감문면 태촌리 8.2km)

- 경북 김천(국도 59호선) 사업은 도로 선형을 개선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고,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사업이다. 금년초 개통한 구미시(6.1km)구간과 연계하여 김천-구미 지역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.

사 업 개 요	전 경
(사업명) 김천-구미 국도건설공사 (위치) 경북 김천시 대광동 ~ 감문면 태촌리 (개통) L=8.2km, 2차로 선형개량 (사업비) 314억원 (기간) 2018. 10. ~ 2027. 10.	

② 경기 안성(국도 38호선): 8월 5일 09시 개통 (공도읍 만정리~대덕면 신령리 3.7km)

- 경기 안성(국도 38호선) 사업은 공도읍에서 대덕면 구간의 상습 교통 혼잡구간의 지정체를 해소하여 지역주민들의 이동편의가 개선되고, 경부고속도로(안성IC) 접근성 향상에 따라 평택, 용인 등 주변 도시간 이동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사 업 개 요	전 경
(사업명) 공도-대덕 도로확장공사 (위치) 경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~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(개통) L=3.7km, 6차로 확장(임시개통) (사업비) 755억원 (기간) 2017. 05. ~ 2025. 08.	

③ 경기 연천(국도 3호선): 8월 29일 11시 개통 (신서면 도신리~대광리 6.9km)

- 경기 연천(국도 3호선) 사업은 좁고 굴곡진 도로를 개선하고, 일부 우회 도로 조성을 통해 이동성을 높이고 보행환경을 개선한 사업으로서 접경 지역의 관광 및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.

사업개요	전경
(사업명) 연천-신탄리2 도로건설공사 (위치) 경기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~ 신서면 대광리 (개통) L=6.9km, 2차로 시설개량 (사업비) 577억원 (기간) 2020. 02. ~ 2025. 08.	

④ 전북 진안-무주(국지도 49호선): 8월 30일 10시 개통 (진안 동향면 대량리~무주 안성면 장거리 9.8km)

- 전북 진안-무주(국지도 49호선) 사업은 선형개선, 터널건설, 도로폭 확장 등을 통해 기존의 산악지 급커브 험로를 개선하고, 영농 진입로 정비, 길어깨 확장 등 농촌 친화적 도로로 추진되었다. 아울러 도로 곳곳의 신호등, 안전표지판 등도 정비하여 노인 보행자의 사고위험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.

사업개요	전경
(사업명) 동향-안성 국지도건설공사 (위치) 전북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 ~ 무주군 안성면 장거리 (개통) L=9.8km, 2차로 선형개량 (사업비) 641억원 (기간) 2018. 07. ~ 2025. 10.	

- 전북 진안-무주사업을 총괄한 전북특별자치도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“이번 동향-안성 구간 개통은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동시에,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성과”라며

○ “앞으로도 개통 이후 주기적인 도로 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□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“앞으로도 도로 지정체 해소와 안전성 개선이 필요한 지역의 노후도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”고 하면서,

○ “아울러,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로서의 간선도로망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	책임자	과 장	오수영	(044-201-3888)
		담당자	사무관 주무관 주무관	김영수 함순식 김희욱	(044-201-4768) (044-201-3892) (044-201-4767)
<협조>	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	책임자	과 장	김형준	(02-2110-6810)
		담당자	주무관	이명신	(02-2110-6813)
<협조>	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	책임자	과 장	박상철	(02-2110-6820)
		담당자	주무관	최영진	(02-21410-6817)
<협조>	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	책임자	과 장	서호규	(051-660-1120)
		담당자	주무관	안복현	(051-660-1135)
<협조>	전북특별자치도 도로공항공철도과	책임자	과장	권민호	(063-280-2890)
		담당자	주무관	송준영	(063-280-4403)